

새정치 국민공감혁신위 구성 착수 “국민 공감할 인물 영입 쉽지 않네”

물망 오른 인사들 잇단 고사...구체적 개혁안 제시 못한 것도 원인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당 재건과 혁신을 주도할 ‘국민공감혁신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으나 인물 영입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 안팎에서 추천한 외부 인사들을 토대로 ‘영입 리스트’를 작성, 물밑 접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7·30 재·보선으로 확인된 차가운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 비대위 명칭에 ‘국민공감’이라는 말을 덧붙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 개혁을 재검토할 외부 위원의 면면이 혁신의 성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옥석 고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추천 리스트에는 저명 교수, 지역 활동가, 원외 인사 등이 두루 망라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위원장은 ‘투쟁정당’ 이미지를 벗고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중도 성향 인사의 영입에 신경을 쓰고 있는 눈치다.

일각에서는 과거적으로 정치와 무관한 일반 국민을 참여시키자는 제안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영입 대상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는 점에서 인선이 상당한 난항을 겪지 않느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인사들은 말도 꺼내지 마라며 고사하는가 하면 아예 접촉 자체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김종진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김부겸 전 의원 등 중랑감 있는 정치권 인사들의 경우에도 본인 고사 등의 이유로 영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구체적인 개혁 플랜과 의지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외부 인사 수혈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반영하듯, 박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이 공감하는 인물들을 모시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토로했다.

김영록 원내 수석 부대표도 “공감위에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인물을 찾기 어려우며 당 내의 인사들에게 추천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위에 참여할 당 내부 인사 구성도 난제다.

최대한 계파색이 얽은 위원회를 구성, ‘계파 조율’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계파별 안배를 하는 비대위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번 비대위는 계파를 초월해서 구성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도 성향이나 무계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이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감위 구성도 되기 전에 당내 혁신을 둘러싸고 계파와 인물을 중심으로 제각각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박 위원장의 구상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전략공천 배치와 국민참여경선(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 혁신의 분위기를 잡아 간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당내 관계자는 “진정된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혁신 원칙을 세우고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무총장 조정식·전략홍보본부장 김현미 의원

새정치 당직 인선, 우윤근 정책위의장 유임

새정치민주연합의 당 대표격인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사무총장에 조정식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김현미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유임됐다.

박영선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순학규계’로 분류되는 조 신임 사무총장은 경기 시흥을 지역의 3선 의원으로 2007년 열린우리당 홍보기획위원장, 2008~2009년 민주당 원내대변인, 2010~2012년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했다.

재선의 김 본부장은 경기 고양 일산서구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국내언론비서관과 정부2비서관을 지낸 뒤 2011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을 거쳐



조정식 의원 김현미 의원

현재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조 사무총장은 6·4 지방선거에서 경기 지역 공천위원장을 하면서 안정감있게 공천을 진행했고, 성품도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 “김 본부장은 당을 잘 알고 박영선 위원장의 내심을 잘 읽어 당의 공감과 혁신 기능에 중요 역할을 맡을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박영선, 논산 훈련소 방문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이 6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를 방문해 식당에서 훈련병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관진·김진태 사퇴여론 여당까지 확산

〈당시 국방장관〉 〈검찰총장〉

김무성 새누리 대표는 “추가 인책 안돼”

박근혜 대통령이 윤일병 집단폭행 사망 사건과 유병언 시신 부실수사 질타 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환 경찰청장이 전격 사퇴하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도 ‘형평성’ 차원에서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확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비대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윤일병 사망사건에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고 밖에 저희가 지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같은 당 박지연 의원도 권오성 총장 등의 사퇴 후 트위터를 통해 “육참총장, 경찰청장 사의 표명! 아직도 책임질 사람들 있습니다. 표명 바랍니다”며 김관진 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정창태 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사실 경찰이 잘 할 것은 없다. 그렇다고 검찰이 경찰보다 잘했나? 그것도 아니다. 그럼 경감이 같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경찰만 봉인인가?”라며 김진태 검찰총장 사퇴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에서도 김관진-김진태 퇴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중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김관진 책임론”에 대해 “김 장관 시절에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 2011년경에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참총장이나 국방장

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사고가 생겼을 때에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 지시가 훈련을 더 잘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몰라도) 훈련이 더 잘됐다고 보기도 어렵고 오히려 사고대응력을 떨어트렸기 때문에 김관진 장관도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질타했다.

그는 김진태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사퇴를 안 하려면 둘 다 안 해야지 경찰청장은 하고 검찰총장은 하지 않는다. 뭔가 부자연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윤오 일병 집단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육군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진 것”이라며 사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현 국가안보실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추가 인책론에 선을 그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소장파 혁신모임 ‘아침소리’ 내달 출범

새누리당 내에 소장파 중심의 새로운 혁신모임이 내달께 출범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기존 당내 혁신연대와 쇠신전대추진모임을 통합한 형태의 새로운 혁신모임으로 가장 ‘아침소리’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혁신연대는 당내 초·재선의원들의 모임이고, 쇠신전대모임은 새누리당의 7·14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범했던 모임이다.

아침소리에는 혁신연대 또는 쇠신전대 모임에서 핵심역할을 해왔던 재선의 조해진·김영우 의원과 하 의원을 포함한 초선의 강석훈·서용교 의원 등이 주축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침소리에는 기본적으로 혁신연대와 전대쇠신모임에서 활동했던 초·재선 중심의 30여명이 참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초·재선에만 국한하지 않겠다’

는 방침에 따라 일부 개혁적 중진의원들의 참여가 주목된다.

아침소리는 오는 25일 모임을 하고 조직구성이나 활동방향 등에 대한 세부적 논의할 예정이다.

하 의원은 “7·30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이 많다”면서 “새로운 쇠신모임은 당내 쇠신운동을 체계적으로 벌여나가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노무현-유병언 식사’ 허위글 유포 네티즌 고소

노 전 대통령 장남 견호씨

노무현 전 대통령 장남 견호씨가 노 전 대통령이 조운제 서강대 교수와 식사하는 사진을 “노무현 대통령이 유병언 전 세모 그릇 회장과 식사했다”며 유포한 네티즌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달 4일 경남 창원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견호씨는 여론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유병언 전 회장이 삼계탕을 먹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해당 사진 속 인물은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당시 참여정부 경제보좌관 조운제 서강대 교

수”라고 전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하고 경남경찰청에 수사를 하도록 지휘했으며, 경남경찰청은 현재 50여명의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 통신수사를 진행하는 등 유포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지난달 11일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유병언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전직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할 때 유병언 하고 밥 먹은 사진이 나왔어요. 확인해보셨습니까?”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5주년

18일 추도식...국립 현충원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서거 5주년 추도식이 오는 18일 오전 10시 동작동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다.

6일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추도식은 추도사, 김 전 대통령의 육성 영상 상영, 추모 노래 등의 순서로 진행된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묘소로 이동, 참배가 이뤄진다.

8월 한달간을 추모기간으로 정한 ‘김대중 대통령 서거 5주기 추모위원회’는 11일~18일 김 전 대통령의 집무실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통 주역사주

주역은 우주만물의 변화과정을 설명한 유교의 경전이다. 인간도 예외 일수는 없다.

본인의 운명 판단 및 미래에 대비하는 **주역의 종합본**

저자 **서상덕** (전 교육연구관) 석사

- 필사본
- 정가 : **32,000원** (택배비 포함)
- 구입문의: **010-4211-2146**
정확한 우편번호, 주소, 성명 전화번호 명시
- 불법 복제를 금함

2014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9기)	광주교육대학교(10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4. 9. 5.(금) 09:10 (특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4. 9. 5.(금) 14: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4. 9. 6.(토)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월요일 오전반: 2014. 9. 1.(월) 14:10 (초급반) ·월 목 야간반: 2014. 9. 1.(월) 19:00 (중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4. 9. 4.(목) 09:10 (고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4. 9. 6.(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4. 8. 1.(금)~9. 6.(토)	2014. 8. 1.(금)~9. 6.(토)
수업기간	2014. 9. 5.(금)~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4. 9. 1.(월)~2015. 2. 14.(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야간반 19:00~21: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예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초·중·고)교과 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wk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ac.kr/

기성고대출 전문취급금고

망은 있는데 공사가비 부족하신 분과 건설회사를 위한 대출!

- 착공부터 완공시까지 자금지원
- 대출한도는 최고 15억
- 토지에 기존 대출 있어도 가능

대출금 지급방법
공사 기성에 의한 지급

상담시 구비서류

- 시설비용과 소요자금 명세
- 공사시방서
- 공사도급 계약서
- 도급업자의 도급공사
- 공사비목명세서
- 기성부분 보고서(기성고명세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담당 민 창원 과장 연락처 062)720-2828

서양새마을금고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8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다문화 가정 지원
500가 2,400만원 100대
독거노인 소액기부 100대

이사장 안두경 전무 하현준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연세 장기예금 금리 연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당림지점 652-9203 주유시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